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광주 온실가스 10년새 25% 증가 ▶2 | ‘김용판 무죄’ 다시 대치정국 ▶4 | 뉴욕서 타계한 김보현 화백 ▶2·1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73호 1판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음력 1월 11일)

전남 일부 지자체 종교단체 운영 노인대학에 수억원 지원

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신안·무안 등 서부권 집중
‘교리 전파 지원’ 비판
군의원 강의 등 내용 부실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강의가 이뤄지고, 해당 종교 지도자가 강사로 참여해 사실상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리 전파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일선 시·군이 92곳의 노인대학에 강사비·급식비·운영비·견학비·차량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들 노인대학 수강생은 1만1000여명이었고, 같은 해 전남도 본청이 지원한 노인대학 예산은 1800만원이었다.

현재 전남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종교단체와 노인회 등이며, 이들 지자체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준 노인대학의 53%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문제는 지자체의 노인대학 예산 지원이 종교인이 다소 많은 신안·무안·목포 등 전남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안군의 경우 지난해 7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2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5년간 이들 노인대학에만 8억8000여만원을 지원해줬다.

예산은 대부분 운영비와 차량구입비, 체육대회 비용 등으로 쓰였고, 지도, 압해, 임자, 자은, 신의, 장산, 팔금 등 섬 지역에 골고루 지원하고 있었다. 인구가 많은 큰 섬에는 지난해에만 8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10년 8800만원을 들여 차량도 구입해줬다. 신안군은 올해도 예산을 늘려 2억8000만원을 이들 노인대학에 지원키로 했다.

목포시도 같은 기간 10곳의 종교단체 노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은 11곳의 노인대학 중 종교단체가 아닌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또 무안군은 12곳의 종교단체 노인대학에 7200만원을, 함평군은 9곳의 종교단체 노인대학에 9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노인대학 중 일부는 근무자가 1명뿐이며, 강사에 해당 종교단체의 종교인과 군청 관계자가 포함돼 있고, 군의장의 의정보고와 군의원들의 강의가 진행되는 등 내용이 부실한 곳도 많았다.

일부 노인 대학에서는 ‘영적독서’ ‘성경교실’ 등 종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종교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이 많은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관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노인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며, 신안군 노령인구를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면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눈부신 설원 위 광속질주 소치 동계 올림픽 남자 알파인 스키 활강종목에 출전한 이탈리아 피터 힐이 8일 로사 쿠토르 알파인 센터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다. 역대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가장 많은 71명(남자 41명, 여자 30명)의 태극전사를 출전시킨 한국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연합뉴스

오늘의 소치올림픽

10일(월)

18:45~21:35	쇼트트랙★	▲1,500m 예선/결선 ¥ 신다운, 이한빈, 박세영
		▲500m 예선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계주 3,000m 준결승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조해리
22:00~익일 01:25	스피드 스케이팅 ¥★	▲500m 예선/결선 모태범, 이강석, 이규혁, 김준호
23:00~익일 04:10	프리스타일 ¥	▲모굴 예선/결선 최재우
23:45~익일 02:40	루지	▲싱글 예선 성은령

연합뉴스 ▲남 ▲여 ¥메달 ★주요경기

범위·액수 산정 진통…피해보상 난항 예고

여수 기름 유출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6·8면〉

9일 해양수산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 등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1차 회의에서 방제 비용· 의료비 지급 뿐 아니라 어민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당장, 사고수습본부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GS칼텍스 측과 피해액 수 산정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각각 공동 손해사정인을 선정, 기름 피해 지역을 확정하고 양식장 수, 어획량을 확정, 피해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어민들과 GS 칼텍스 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과정에서 어떤 전문업체를 선정해 어느 지역을 피해 해역으로 보고 조사할 것인지, 평상시 어획량, 관행 어업에 따른 피해액 산정 범위, 간접 피해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어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S 칼텍스가 우선 보상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선보상 부분도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 양측 의견을 조율해 피해 조사를 벌이기까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여수 원유유출 사고 9일째인 지난 8일 현재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1만39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군병력을 포함한 봉사자와 기관·단체 참가자가 59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민 등 지역민 3284명, 여수시 공무원 1159명 등이다. 지난 7일에는 충남 태안지역 주민 45명이 여수 신덕마을을 찾아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영암 산란계 농장서 전남 4번째 AI 확진

확산 여부 촉각…전남도 인근 닭·오리 살처분

영암의 닭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9면〉

9일 전남도는 “영암군 도포면 산란계 농장의 AI가 고병원성인 H5N8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전남에서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은 4번째다.

이 농장은 축사 2동에서 닭 2만7000여 마리를 사육했는데 지난 5일 300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6일에도 1만2500여 마리가 떼죽음해 AI의심신고가 접수됐고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

전남도는 이 농장을 포함, 500m 반경 안에 있는 또 다른 산란계 농장 1곳 등 2곳의 닭 5만2000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해당 농장 인근 반경 3㎞ 안의 농장 3곳, 오리 3만마리를 추가 살처분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이 이미 AI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인근 씨오리 농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방역대인 10㎞ 밖으로 확산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해남과 나주, 영암, 무안 등 모두 7건의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4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하면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농가 주변 3㎞ 안에 있는 24개 농가의 닭·오리 4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저는 2013. 2.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여러분의 성원 속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법에 따른 전임지 수임제한이 해제되기에 광주고등법원(고등검찰청 포함) 사건에 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 준 성 올림

■사 무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03호(법원정문 앞)
■대표전화 : (062) 233-3030